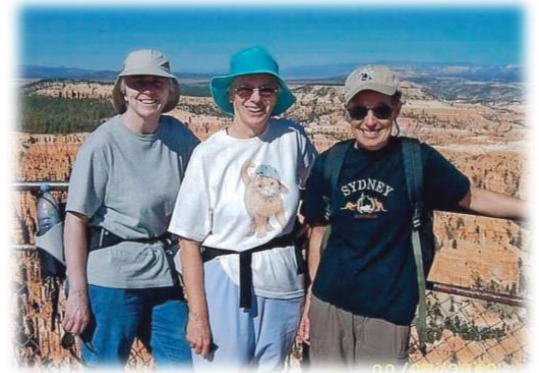




Hi, my name is Sister Edie Strong. I will be celebrating God's grace of 56 years as a Sister of Charity this September. These years have seen a variety of ministry, all unified by the one desire to love with the heart of Jesus.

I was born the second child of four to loving parents who gave our family many opportunities to appreciate creation; I know God through creation and have zeal in my heart for doing what I can to respond to the cry of the earth and the cry of the poor. I

feel much loving support and emotional connection with my one living sister and my nieces and nephews and their families.



I entered the Sisters of Charity after two years of study at Seton Hill University. In my early years, I



taught young people in middle school, high school and then college. I enjoyed serving younger children and their families through being director of Seton Hill Child Services. I enjoyed serving rural folks as a mental health therapist and by coordinating a work camp program for youth. I enjoyed serving our sisters for a brief time on the provincial council, as a social worker with hospice, in my volunteer work with prisoners, and now as Pastoral Associate for two parishes.

I coordinate Seton Family for the U.S. province. Our purpose is to help lay women and men claim their essential role in the Church and to do so through the spirituality gifted to our church by Saints Elizabeth Ann Seton, Vincent de Paul, and Louise de Marillac. There are five Seton Family groups, all of which have surfaced lay leadership



through able facilitation by Sisters of Charity. The pillars of Seton Family are learning, community, prayer, apostolic spirituality and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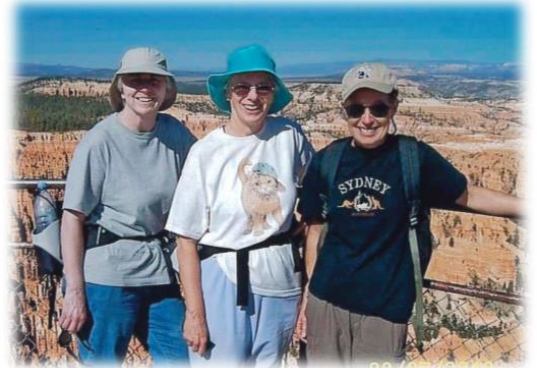
The scripture passage that I try to live by each day is Micha 6:8 "Do justly; love mercy; walk humbly with your God."





안녕하세요! 이디 스트롱 Edie Strong 수녀입니다. 저는 이번 9 월이면 사랑의 수녀로서 하느님 은총의 56 주년을 맞이해요.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려는 하나의 갈망으로 다양한 사도직을 했지요.

저는 4 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은 우리 가족들이 창조물을 감상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창조물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제 마음 안에는 지구와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열정이 있지요. 형제 중에 지금 살아있는 자매 한 명과 그 조카들, 조카들의 가족들이 보내주는 애정 어린 지지를 받으며 마음으로 깊은 유대감을 느낍니다.



저는 씨튼 힐 대학교에서 2 년 동안 공부한 후에 수녀회에 입회했습니다. 수도생활 초기에는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쳤고, 그 후 대학에서 젊은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씨튼힐 차일드 서비스 Seton Hill Child Service(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일하면서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봉사했고, 정신 건강 치료사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젊은이들을 위한 캠프 프로그램을 맡아 즐겁게 일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관구 이사직을 맡아 우리 수녀님들을 위해서 봉사했고, 호스피스 사회 복지사로 일했고, 교정 사목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두 본당에서 본당 사목을 협조하고 있어요.



또, 미국 관구의 씨튼 가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씨튼 가족의 목적은 남녀 평신도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로, 특히 교회의 선물인 성녀 엘리사벳 앤 씨튼, 성 빈첸시오 드 폴, 성녀 루이즈 드 마리악의 영성을 통해 그 역할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현재 씨튼 가족은 다섯 그룹으로, 우리 수녀님들의 촉진 활동을 통해 평신도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어요. 우리 씨튼 가족은 배움, 공동체, 기도, 사도적 영성과 봉사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의 삶에서 미카 예언서 6 장 8 절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느님과 함께 걸어라."라는 성경 말씀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